

생명의 신비 파헤쳐 온 인류의 여정

위대한 유산

조대호 외 지음



인간을 살아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화와 철학이 말하는 영혼의 실체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본질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은 철학과 예술의 으뜸 과제로 자리잡았다.

고대에는 생명의 신비를 영혼의 존재를 통해 이해하려 했고 중세에는 기독교 신학에 의지해 생명체의 질서를 규정하고 해명하려 했다.

흔히 진화론 하면 다윈을 떠올리지만 앞선 철학자들 또한 이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 고대 그리스의 엠페도클레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는가를 탐구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생명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해 부단히 사색하고 연구하며 전망을 열어왔다.

인류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학문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인간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 책이 발견됐다. '위대한 유산'은 연세대 철학과 조대호



고대와 중세시대는 생명의 신비를 영혼의 주제를 통해 이해하려 했던 시기였다. 사진은 루터성경에 묘사된 천지창조 모습. (arte 제공)

교수와 시스템생물학과 김응빈 교수, 영어영문학과 서흥원 교수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기원과 존재 가치를 탐구한 책이다. 연세대의 명강이기도 했던

'위대한 유산'은 철학, 생물학, 영문학을 넘나드는 '통섭형 학문'에 다름 아니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는 "인류의 현재를 가능하게 만든 모든 지

식의 총결산,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빅히스토리'를 읽는 가슴이 벅차다"고 평했다.

책은 베틀에서 인공지능까지 철학, 과학, 문학이 밝히는 생명의 모든 것을 다룬다.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그 자체로 흥미롭다.

오늘날 생명의 단위를 이해하는 기초 요소는 유전자다. 과거에는 영혼이 역할을 담당했고 서양사람들은 생명체를 '영혼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 1995년에 도도시 벨긴 수전 리다가 출간한 'DNA 신비'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유전자는 영혼이 수행하던 사회적·문화적 기능을 넘겨받았다.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유전자는 참된 자아가 머무는 장소로서 자아의 본질적인 단위이다."

현대의 과학은 인간이 원하는 유전체를 설계하고 합성해 다른 생명체에 이식해 맞춤형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공상과학영화나 나오는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현실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3D업종을 대신 처리하는 '일꾼' 로봇의 출현을 넘어 인간보다 높은 지능을 지닌 로봇을 만들어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풀어낼 비밀은 알 수 없다. 인간의 파멸을 막기 위해 '과학과 철학, 도덕과 윤리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arte·1만8000원) /박성천지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청화스님의 참선공부법=현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는 청화 큰스님이 직접 실천 공부법법을 담은 책이다. 청화 큰스님이 생전에 직접 법문한 것을 원음 그대로 정리한 것으로 불자들이 위해 쉽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제1부 '청화 스님의 금타 대화상 보리방편문 설법'과 제2부 '청화 스님의 참선 법문 - 참선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참선인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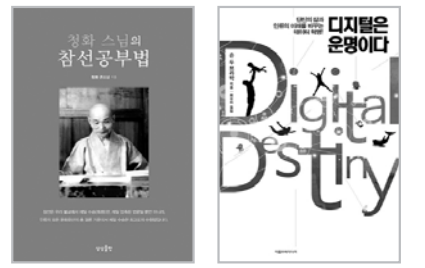
(상상출판·1만5000원)

▲디지털은 운명이다=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혁명이 불러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손 두브라박은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 말한다. 손은 디지털 기술과 그 이전 기술들이 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만 비로소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무한한 데이터를 자신에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름드리미디어·2만2000원)

▲당신이 흔들리는 이유=불륜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불륜을 목격하거나 불륜담을 듣기만 어렵지 않다.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 막장 드라마는 여전히 인기가 많고, 유명인의 불륜 소식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 제1부에서는 '불륜학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불륜의 현 상황과 역사를 다양한 데이

(채륜서·1만4000원)



터와 학문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제2부에서는 불륜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제조법을 고찰한다.

(휴먼카인드북스·1만3000원)

▲우리의 봄날=가야의 악사, 우륵의 일생에 상상력을 더한 패션소설이다. 역사에 박제된 우륵이 아니라, 사랑하고 미워하고 울고 웃는 한 예술가였던 살아 있는 우륵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책의 내용이 곧 우륵의 진짜 삶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니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살아 있는 악사 우륵을 만나볼 수 있고, 의문스러웠던 그의 행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책

▲먼 데서 온 손님=어느 날, 생쥐네 집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된다. 시청에서 오갈 데 없는 누군가를 집으로 보낼 거라는 소식이다. 어느 날 저녁 아주 먼 곳에서 리산더가 찾아온다. 그런데 리산더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 아무도 쓰지 않던 욕소에서 자랐다고 하더니, 밖에서 흙을 파다가 욕조 전체를 진흙으로 만들어 버린다. 생쥐들은 화를 내지만 리산더는 빙그레 웃으며 내일이면 알게 될 거라고 말한다. 리산더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오늘부터 울보탈출=작은 일에도 쉽게 우는 '울보' 친구들을 위한 책이다. 어떻게 해야 눈물을 참을 수 있을까? 이 책은 말 대신 눈물이 먼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알려 준다. 우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 자기만의 눈물 참는 방법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 동호의 우는 습관을 고쳐 주기 위해 동호네 반 친구들이 그 방법을 하나씩씩 알려 주는데, 친구들이 알려 준 방법을 따라 하는 동호의 모습은 우습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풀빛·1만2000원)



(스콜라·9500원)

▲나만 몰랐던 잠 이야기=어린이를 위한 똑똑한 '잠' 탐구 그림책이다. 잠자기 싫은 아이에게 아빠는 조곤 조곤 잠이 무엇인지, 왜 자야 하는지, 잠을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 준다. 또, 잠을 적게 자기로 유명한 에디슨과 나폴레옹, 윈스턴 처칠과 같은 위인들 또한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잠을 안 잔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 잠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준다.

커피향 묻어나는 역사적 순간들

커피 인문학

박영순 지음



커피 향미와 인문학을 접목해 강의와 글을 쓰고 있다.

책은 '커피, 역사를 만든다', '커피, 조선을 깨우다', '커피, 문화를 만든다', '커피 인문 여행'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우리나라 커피 역사를 다룬 3장이다. 무엇보다 아관파천 후 시름을 달래기 위해 '고종이 처음 커피를 마셨다'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문헌으로 확인시켜준다. 미국 천문학자 피시벌 로웰이 1885년 펴낸 '조

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는 1884년 한강변에서 커피 대접 받은 사연이 소개돼 있고, 이는 고종보다 12년 앞선 일이다.

프랑스에서 커피는 계몽사상을 일깨운 각성제로, 카페는 민중의 혁명을 고취시킨 아지트로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다.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한 '다방' 역시 지식인의 교류의 장이자 일제강점기 시대적 각성과 조선인 간 문화교류가 빈번히 이뤄지던 곳이었다.

1920~30년대 명동과 충무로는 밤이면 카페로 불야성을 이뤘다. 조선인 최초로 안국동 네거리에 다방 '카카듀'를 연 이경순은 항일 색채를 띤 영화를 제작하고 나온규를 발굴했다. '카카듀'는 영화 '밀정'에서 재현된다. 시인 이상은

'제비', '커피 쓰루' '무기' 등 5~6곳의 다방을 열었고 박태원, 김소운 등 문인들의 아지트이자 창작과 계몽의 흐름이 넘실대던 곳이었다.

그밖에 러일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참예했던 마크 트웨인이 고종이 영빈관으로 활용했던 손탁호텔에 머물며 커피를 마신 이야기, 이기붕과 그의 아내 박 마리아가 다방을 열었던 이야기, 1976년 12월 23일 동식식품이 세계 최초로 간편하게 물에 타 마시는 커피믹스를 개발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책은 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커피, 하와이의 하와이안 코나 커피 등 세계 각국의 커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커피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유사라씨가 에스프레소로 그린 '커피 그림'도 눈길을 끈다.

(인물과사상사·1만9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

2개동 (룸 총 46개) 즉시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2,0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매매가 9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직매 010-7384-7800

영광 주택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

010-6670-9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 2) 동구 금남로 총장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 3)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광주대 3분거리, 월수익 5백 이상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4) 남구 진월동 (5층 상가건물)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5) 북구 신안동 (무인텔)
감정가 51억 - 최저가 36억
-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 7) 북구 중흥동 (3층 상가건물)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9억6천

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 토지, NPL전문

경매교육

매주월요일 개강 → 기초부터 실전까지
프리직원(파트너) 모집
062-382-5500